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10월 25일 (제106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 인격의 척도

인격(人格)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말한다. 그렇다면 사람의 품격은 어떻게 측량할까? 바로 유혹으로 흔들어보면 된다. 돈이나 이성, 권력으로 유혹했을 때 반응을 보면 인격의 척도가 가늠된다.

왜 해룻이 두 살 아래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을까?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해서였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나섰다고 하자, 자기의 권좌를 빼앗길까 봐 이유 불문하고 모두 다 죽인 것이다. 다윗도 한때 권력에 연연하여 인구조사를 했었다. 말 그대로 인구조사가 아니라 인구가 곧 세력이던 당시, 자기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세어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되게 맞았다. 가룻 유다는 예수님을 은 삼십 냥에 팔았다. 왜? 그의 본심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권력을 얻고 싶었던 것이다. 그게 여의치 않자 스승을 팔아버린 것이다. 천로역정을 보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돈 때문에 넘어진다. 돈 앞에서 무력해지고, 돈 때문에 배신을 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조차 뒷전이 된다. 성경 속 인물인 발람 선지자, 게하시, 아간처럼. 이 외에 솔로몬, 삼손, 다윗은 여자 앞에서 무너진 자들이다. 근래에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인물들이 여자 때문에 곤두박질치는 것을 본다. 유혹은 마귀의 전략 전술 중 하나다. 하와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로 유혹했듯이,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유혹했듯이, 믿는 자들을 달콤한 것으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것에 혹해서 넘어가면 인생은 종전다.

나는 특별히 주의 종에게 부탁한다. 이성 과 돈 앞에 담대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나도 36년 동안 정말 많은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했기에 그것을 이겨냈다. 그렇다. 미혹을 이기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하여 성령충만하면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이다. 고로 늘 깨어 기도하자.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인격의 완성, 곧 신성(神性)에 이르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딤후6:9).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응답을 축하합니다~”

10월 14일, 꼭 두 달 만에 열린 수요일예배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다시 대면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축하송으로 자축했다.

목사님은 이날 '율법과 복음'에 대해 설교하시며, 율법과 복음에 대해 알아야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나라가 36년간의 일제강점기 끝에 해방을 맞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받은 자가 아니고는 절대 알 수 없는 환희

리는 그것으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은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갈5:3). 복음(福音)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으로, 예수님은 율법에서 자유하라 하건만 여전히 착고에 얽매어 그것이 옳다 여기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해방이 되었다고 해도 믿지 않고 지하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 자들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 이렇게 비유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5:1)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의 종이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롬8:15).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건만,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어 사는 건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바로 엄습하는



두 달 만에 재개된 KBS88체육관 대면예배 광경

였을 것입니다. 이 자유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애국지사들이 피 값을 치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보답하는 길은 그분들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다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피로써 얻은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며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 값으로 얻어진 귀한 것입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멍에를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어리석지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법입니다. 그 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혹여 율법이 구원의 법이라 해도 우

서 벗어났느니라'(롬7:2). 고대혼인법에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게 매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서 다른 남자와 살아도 음녀라 불리지 않았습다. 은혜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율법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다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렇듯 율법이 정죄의 법이라면, 복음은 사랑과 용서의 법입니다.

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충만에 있습니다. 성령충만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 증거로 율법을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번잡함을 폐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개혁을 이루셨습니다(히9:1~12).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키지도 못할,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을 율법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롬8:1~2).

신묘수 전도사

##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극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41:25~49)

# 유비무환의 지혜를 배우라

‘가장 지혜로운 자는 준비한 자이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자는 철저하게 성공하기로 작정한 자나,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 자는 철저하게 망하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고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이요, 무비무환(無備有患)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비무환에 대한 아주 좋은 예입니다. 바로가 두 번 연이어 같은 맥락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살찐 일곱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세약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누구도 해몽하지 못한 이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되는데, 이는 곧 애굽 땅에 칠 년 동안 풍년이 들겠고, 그 후 칠 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든다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는 지체하지 않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 이에 대비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보면 바로는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욕에 갇혀 있던 노예를 자신의 다음 자리인 총리 자리에 앉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는 것을 보면 결단력은 물론이고 예지력이 탁월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기대할 것이 없다

하여튼 바로의 명예 따라 약관의 나이로 총리에 오른 요셉은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년이 계속된 칠 년간의 소출을 각 성에 비축하여 흉년에 대비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던지 바다의 모래 같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창 41:47~49). 넉넉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국은 물론이요,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 국가까지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애굽을 부국(富國)으로, 강국(強國)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리던 가족과 다시 상봉하는 예기치 못한 결과까지 얻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자만이 수확하는 열매입니다. 노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 훼손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금식하며 기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얻게 하였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그 밖의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거침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

었던 동력은 그의 아버 다윗이 성전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돈은 물론이요, 성전을 장식할 보석까지 준비했으며, 심지어는 작은 못까지도 다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석수와 목수, 일에 능한 자들도 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영상예배를 드릴 때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미리 위성과 유튜브를 통한 영상예배 시설을 확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영상예배에 이미 적응해서 이로 인해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감사

했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는 철저하게, 넉넉하게 해야 합니다. 1997년 우리나라는 IMF사태를 겪었습니다. 국가가 부도날 뻔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화를 비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업의 노력은 물론 아기 돌 반지까지 다 내어놓는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들의 지혜까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해내기는 했지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죠.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점검이 아닙니까? ‘내 인생이 설마 부도나겠어?’ 하십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인생도 부도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도 준비하지 않으니 부도나는 판인데, 준비하지 않은 기업, 개인이 무슨 수로 버틴단니까? 준비해야지요.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해야지요. 사후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지요. ‘국가가 뭘 안 해주나?’ 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까’ 하는 경지가 되어야지

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대충’입니다. 대충대충, 얼렁뚱땅, 대강대강 준비하면 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니다. 열 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었으니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준비를 하긴 했는데 대충 준비한 점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대충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

녀는 기름이 떨어졌고, 다시 사라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잔치 문이 닫히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 마태복음 24장에 받을 갈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세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교회 성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낭패당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중도하차 하지 않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성전건축을 위해 만반의 채비를 갖춘 후에 시작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눅14:28~30).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미물인 개미에게 배우라고 했을까요? ‘개미’라는 영

화를 비행기 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것들은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주권자도 없지만,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고, 추수 때에도 미리 양식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잠 6:6~8). 미물도 그럴진대 사람이 준비하지 않고 어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회란 이름표를 달지 않고 불쑥 오는데요.

## 대충이란 균을 잡아야 성공한다

준비해놓은 자는 여유와 자신감이 있습니다. 늘 공부를 해놓은 사람은 선생님이 갑자기 시험날짜를 발표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곧 수능입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한 자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자는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또 보일러 점검도 해놓고, 김장 준비도 해놓고, 겨울철 옷도 준비한 주부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도 여유가 있습니다. 랜턴이나 초를 준비해놓은 자는 갑자기 정전이 되어도 겁나지 않고, 보혈을 들어놓은 자는 갑작스런 재앙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차에 번기통 하나는 준비해놓는 것도 지혜입니다. 차가 막혔을 때 당황하지 않지요. 더욱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모르는 터, 늘 신앙을 점검하고 준비한 자는 ‘언제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눅12:40).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법,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주 삼라만상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수양을 준비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준비하셨고, 또 장차 우리가 살 천국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갑작스런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하고, 사후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 단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 우생마사(牛生馬死)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큰 저수지에 소와 말을 동시에 던져 놓으면 둘 다 해엄을 쳐서 밖으로 나오는데, 장마철에 홍수가 났을 때 해엄을 잘치는 말은 자신의 힘을 믿고 물살을 거슬러 똑바로 직진해서 강을 건너려다가 힘이 빠져 죽게 되지만, 소는 물살에 몸을 맡기고 유유히 떠내려가면서 조금씩 물으로 나가서 목숨을 건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난 홍수 때 경남 합천에서 기르던 소가 불어난 물에 80km나 떠내려가 밀양에서 유유자적하게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식표를 확인한 후에 주인을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세상의 험한 풍파를 헤쳐 나가려고 하면 지쳐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겨내기 힘든 시련일지라도 믿음과 목표를 잃지 않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다 보면 살길이 생깁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전3:1).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목표를 향하여 다가가는 것입니다. 열매는 심은 자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린 자가 따먹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것과 조금한 것은 확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하여 계획성 있게 일을 하지만, 조금한 자는 동분서주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제풀에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

를 것이나 조금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잠21:5).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이 처음 교구에 들어가는 전도사들에게 꼭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기도만 하면서 교구의 상황을 살펴본 후에 일을 추진하라.” 처음 부임한 전도사들이 의욕만 앞서서 교구의 조직이나 방식들을 바꾸려고 하다가 일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매사 조금함이 문제입니다. 바늘을 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습니다. 바쁠수록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며 성공의 비결입니다. “네가 언어에 조금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잠29:20).

삶에는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라면서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힘만 믿고 직진하다가 힘이 빠져서 물에 빠져 죽는 말과 같은 우매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본주의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매사 철저히 준비하고 꿈을 이룰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이 땅에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마25:21).

상화평 목사

:: 신앙논객 ::

# 변질(變質)은 한 순간이다

다시 대면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지난 봄에 이어서 생각지도 않게 또다시 두 달간 영상예배가 지속되며 비대면예배가 장기화되었을 때, 이제는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는 변화(變化)와 혁신(革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변화와 변질(變質)은 다르다. 변화가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적응을 필요로 할 때 그에 발맞추어 부수적인 것들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라면, 변질은 주어진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의 본질마저 왜곡시켜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꼭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주체인 사람도 동일하다.

그런데 변질되지 않는 것은 변화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시대적인 요구를 받고, 상황과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변질을 합리화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과 현재의 삶 가운데서 종종 발견하게 된다.

사무엘상의 주요 등장인물이자 백성들의 요구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된 사울은 변질된 사람 중 하나다. 그는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해도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고 백성들이 흩어진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사무엘 대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린다.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고, 다윗의 영원한 대적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다. 사울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며 능력을 나타내던 자도 한순간에 변질된다. 목사님은 변질되지 않으려면 기도를 쉬지 말라고 누차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시험(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마26:41). 변화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변질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변화되진 못할망정 변질되지 말자. 변질되면 들어갈 곳은 오직 쓰레기통뿐이다.

신혁주 전도사

# 모두 주께 맡기라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날까 미리 걱정하는 것이며, 22%는 너무 사소해서 무시해도 좋은 일이다. 걱정의 4%는 바꿀 수 없는 일이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정신과 의사 조지 윌튼이 ‘Why Worry?’라는 책에서 걱정에 대해 말한 내용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마6:34).

그러나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원한다고 해도 염려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의 걱정과 근심, 모든 염려를 우리가 하지 말고 모두 전적으로 주께 맡기면 된다. 주님은 우리의 염려를 꼭 우리가 원하는 방

식으로 해결해주시는 게 아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응답해주시 것이고, 아니라면 그래도 괜찮도록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켜 주신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오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잠16:3).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11:28~30).

김성일  
cre8tor@naver.com



:: 내가 매일 기쁘게 ::

# 마음을 지키는 법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는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이다. 작년 가을, 공황 발작을 겪고 난 이후로 나는 가끔 불처럼 활활 타올랐다. 활활 타오르는 나의 분노와 열기는 주위 사람들은 물론, 나 스스로까지 다 태우곤 했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삶의 긍정적인 면은 찾기가 어려웠다.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것이 의지의 문제만은 아님을 인정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먹기 시작했다. 삶의 끈을 찾기 위해 강렬하게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심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남편의 격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으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는 일이 참 많다. 억울한 일도 많고, 때론 인생이 허무할 때도 있다. 왜 그럴까? 불같은 시간을 지나 물 같은 평화 속에 있는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이유는 단 하나,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며 타오르던 분노와 절망에 울부짖던 어느 날, ‘머리 위의 쏙’이 떠올랐다. 그렇게 찾은 잠언에서 나는 주님의 음성

을 들었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나 음식을 먹고 목말라하거나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쏙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잠25:21~28). ‘핀 쏙을 그의 머리에 놓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내고 원망하는 일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제어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뜻이리라.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나는 오늘 다짐해본다. ‘미워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탓하지 말자.’

그래서일까. 지금은 잔잔한 바다를 지나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하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을 지킬 것이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전훈지  
ppjee@hanmail.net



# 일기를 쓰시나요?

2005년 9월 11일 일요일, 저의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나도 이초석 목사님과 이시대 목사님처럼 일기를 쓰기로 했다. 이시대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중에 말씀하셨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일기를 쓰고 저축을 해라.’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지만 저는 변함없이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씁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또 기쁜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다 보면 결국엔 다 감사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알기에 감사하고, 그러한 믿음이 제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쁨과 행복도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기에 더욱 감사하지요.

일기의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썼던 일기를 다시 펼쳐보면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당시에는 저를 무척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모두 해결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최근 한 달 전 일기장만 보더라도 저는 소변에서 미세한 혈이 나와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없어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아서 일주일 후에 소변 검사를 다시 하기로 했지요. 기도하며 일주일을 보냈고 다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여전히 미세한 혈이 있어서 CT촬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장, 방광, 자궁을 검사한 결과, 이상 없음 소견이 나왔습니다. 가끔 일상에 불만이 생길 때면 그때의 일기를 펼쳐봅니다. 모든 불만은 사라지고 그저 건강함에 감사가 나옵니다.

2019년 8월 9일 일기장에는 저의 좋은 습관, 나쁜 습관, 그리고 갖고 싶은 습관이 쓰여 있네요. 주일예배 때 목사님께서

서 습관을 적어보라고 한 말씀을 듣고 실천한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13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그중 7가지 나쁜 습관을 고쳤습니다. 갖고 싶은 습관 3가지 중의 하나는 운동하는 습관이었는데,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20분씩 스트레칭 하는 습관도 몸에 배었습니다. 고치고 싶은 5가지 습관도, 갖고 싶은 2가지 습관도 머지않은 때에 고치고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고, 중간 중간 펼쳐보면서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한 페이지씩 읽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기록과 욥의 시련이 담긴 기록, 다윗의 시를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과거에 제가 쓴 일기 또한 저를 되돌아보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일기를 씁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 예수중심 키드(JCC kid)

골프선수 박세리를 통해 골프를 시작한 아이들을 ‘박세리 키드’, 피겨선수 김연아를 통해 피겨를 시작한 아이들을 ‘김연아 키드’라고 부른다.

나는 ‘예수중심 키드(JCC kid)’다. 송의동 인천 성전 때 처음 어머니랑 교회에 나오게 된 후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 배움은 사회 생활하는데 너무나 큰 지혜로 작용하게 되었다. 우선 첫 번째, 누구보다 탁월한 집중력이 생겼다. 총회장 목사님 말씀을 초등학교 때부터 듣다 보니 학교에 가서도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남들보다 탁월하여 선생님도 학습 태도에 칭찬을 하시곤 하셨다. 또, 직장에서 긴 회의 시간에도 설교로 단련된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사회생활의 장점으로 작용했다. 두 번째,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다. 설교 시간마다 총회장 목사님은 ‘현명한 머리보다 메모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설교 노트와 일기를 쓰라고 강조하셨다. 꾸준히 설교 노트를 쓰면서 필력은 발전하였고, 일기를 씀으로 내 인생의 추억들이 아름답게 보관되어 있다. 또한, 설교 노트에 그날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신 것, 응답을 주신 것을 같이 기록하다 보니 내 설교 노트는 기도응답 노트이자 아이디어 노트가 되었다. 세 번째, 땀속까지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좌절할 수 있고, 특히 요즘같이 여기저기서 힘든 현실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부분이 객관적이라는 프레임을 끼워서 현실 비판적이거나 작은 일에도 포기하거나 무너지기 일쑤다. 때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무 긍정적이야.’ 비웃기도 했지만 ‘조긍정의 삶’을 평생 배웠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예수중심 키드로서 배운 것이 어디 이것뿐일까. 어디서든 배울 수 없는 믿음과 사랑과 지혜를 배웠으니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있으랴. 그래서 예수중심 키드로 성장한 내 삶이 자랑스럽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이기고도 진 사람 vs 지고도 승리한 사람 vs 이기고 승리한 사람

2018 호주오픈 남자단식 16강전에서 정현 선수가 맞붙은 선수는 바로 자신의 우상이었던 노박 조코비치 선수였습니다. 최근 조코비치는 부상 이후 다소 주춤해지긴 했지만 세계 랭킹 1위를 수차례 차지한 선수입니다. 정현 선수는 그와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 조코비치의 패배였습니다.

조코비치 선수가 정현에게 패한 후 한 기자가 다가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직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았셨나 봐요? 무명의 선수에게 패한 것은 부상이 원인이지요?” 이때 조코비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승자의 승리를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부상은 선수에게 늘 있는 일이고, 그것도 실력의 일부입니다. 훌륭한 경기를 한 정현 선수, 축하합니다. 그는 이길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력으로 나를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를 뒀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내년에 뽀빠론에서 만납시다.”

진 것이 기분 좋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신보다 어리고 세계 랭킹도 한참 아래인 선수에게 졌으니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솔직히 패배를 인정하며 정현 선수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조코비치를 보며 선수로서 경지에 오른 대인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고도 이긴 사람입니다.

또한 노박 조코비치와 로저 페더러가 벌인 2019년 윔블던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결승전은 세계적인 윔블던 테니스

대회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클래식 매치였습니다. 영국 런던 윔블던의 올림글랜드클럽에서 열린 2019년 윔블던 남자단식 결승에서 조코비치는 페더러를 세트스코어 3-2로 물리쳤습니다. 윔블던에서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한 조코비치는 그 가운데 세 번이나 결승에서 페더러를 꺾고 정상에 오르는 묘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조코비치와 페더러의 결승전은 4시간 57분이나 소요됐습니다. 그나마도 올해 개정된 규정 덕에 5시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윔블던은 지난해까지 마지막 세트의 경우 타이브레이크 없이 한 선수가 2게임차 이상 듀스로 앞서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게임스코어 12-12가 되면 타이브레이크를 치르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1점 승부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날 조코비치와 페더러의 경기는 5시간을 넘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조코비치는 5세트 게임스코어 7-7에서 자신의 서브 게임을 내렸고, 이어진 페더러의 서브 게임에서도 40-15로 끌려갔습니다. 연달아 두 포인트를 따내야 듀스를 만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조코비치는 포핸드 실책과 자신의 위너를 묶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날 영국 팬들은 어쩌면 마지막 우승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로저 페더러를 더 많이 응원했습니다. 테니스장 입장 팬들은 ‘로저 페드로’를 더 많이 외쳤고 응원하였기에 조코비치는 멘탈 측면에

서도 무척 초조하고 작잡했습니다. 마지막 세트에서 12대12 동점이 되면서 듀스가 아닌 한 점 승부로 경기규칙이 바뀐 결과 결국 조코비치가 승리했습니다. 페더러는 이날 실제 포인트에서는 218-204로 오히려 조코비치를 앞서고도 세 차례 타이브레이크를 모두 패하며 분루를 삼켰습니다.

조코비치는 결승전 경기 후 ‘내가 치른 가장 힘든 경기 중 하나’라며, “모두 페더러를 응원하는 함성 속에서 정신적으로 오늘 경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세계적 경기에서 한 명은 져야 한다. 이 위대한 세기적 경기를 승패의 승부로만 결론을 내야하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힘들고 절박했던 소감을 밝히며 상대 선수인 페더러를 간접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조코비치는 이기고 정말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맛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기고도 지는 사람, 지고도 이기는 사람, 이기고 진실로 승자로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중심교단 성도들은 위의 세 가지 부류 중 어떤 삶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Coram Deo(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고 진실로 승리하느라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신우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메디스팀 줄기세포센터)  
대표원장 안계훈 집사

